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건 사랑이었네

그건 사랑이었네
한비야 | 푸른숲

걸어서 지구를 세 바퀴 반이나 돌았던 여성이 있다. 어떤 이는 그 이를 '바람의 딸'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긴급구호팀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모든 이름을 합해 '여전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최근 한 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출현해 "심각한 길치여서 고민"이라는 상담을 받으면서도, 속사포처럼 자신의 인생관을 선보이며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길'을 보여준 그녀, 바로 한비야다.

여전사 한비야의 맨얼굴을 만나다

사실 한비야의 새 책 『그건 사랑이었네』는 전작들과는 사뭇 다르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한비야의 중국견문록』, 『바람의 딸, 우리 땅에 서다』,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등에서 보여준 그녀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여전사, 그러나 『그건 사랑이었네』에서는 마냥 사람 좋은 동네 언니 혹은 누나처럼 맑고 순수하다. 그래서인지 그녀 자신도 들어가는 글에서 "여러분은 이 책에서 그간 볼 수 없었던 나의 맨얼굴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한다.

"전 책에서는 세상을 돌아다니는 바람의 딸이나 구호팀장인 여전사로서 맹활약하는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번 책에서는 고단한 여행과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돌아와 한숨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땀 냄새 물씬 나는 조끼를 벗고 찬물로 샤워를 한 뒤 헐렁한 티셔츠와 반바지로 갈아입고는 소파에 앉아 일기를 쓰면서 치열했던 현장을 되새겨보는 그런 편안한 느낌으로 말이다. 이번 책에서는 여행가나 구호팀장이 아니라 언니나 누나인 한비야에게 털어놓는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싶다. 얘기 도중에 서로 한껏 맞장구치고 위로하고 응원하며 등 두드려주고 싶다."

순간을 즐기는 삶을 살아라

실제로 한비야는 자신의 일상의 소소함을 툭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때론 누군가의 이야기에 맞장구치고, 때론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고 응원한다. 그리고 등 두드려 주며 '중요한 삶의 기술'을 가르쳐준다. "한마디로 카르페디엠, 그 순간을 느끼고 마음껏 표현하며 즐기는 것"이 바로 한비야가 추천하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미래의 걱정을 땡겨하는 것, 소위 걱정 가불' 속에서 살고 있다.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할까 걱정이고, 학교 마치면 취직 못할까 걱정한다. 서른 즈음에는 결혼 걱정에, 중년이 지나면 아플까 걱정하고, 은퇴 후에는 먹고 살 게 없을까 걱정한다. 그러나 걱정하는 일의 4퍼센트만 실제로 일어날 뿐, 96퍼센트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걱정 많은 세대에 전하는 한비야의 간단 처방, **"그러니 쓸데없는 미래를 걱정하는 시간에 지금 무엇이라도 하면서 재미있게 사는 게 더 현실적으로 현명한 일 아닌가."**

사랑에 관한 향기로운 고백

『그건 사랑이었네』에는 흥미롭게도 한비야의 20년 전 첫사랑 이야기도 등장한다. 대학 은사의 정년 퇴임식에서 만난 그는 '멋지게 나이 든 모습' 이었다. 두 사람의 사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학 은사는 "그 때 차인 기분이 어땠어?"라고 물었고, 천하의 한비야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라고 대답한다. 서먹한 분위기도 잠시 두 사람은 20년 전 연인으로 돌아가 있었고, "깔깔거리며 바람 부는 거리를 가로질러 걸었다."

한비야는 조심스럽게 고백한다. "사랑은 가시처럼 아픈 추억이 아니라 아픈 만큼 소중한 시간"이라고. 그리고 덧붙이기를 "사랑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사랑하였음으로 행복하다는 말, 그런 성숙한 어른들의 사랑을 이제야 할 것 같다"고 말한다. **오랜 세월 동안 건드리기만 해도 아팠던 장미 가시 같은 실연의 기억이 이제는 건드릴 때마다 은은한 향기를 내는 사랑의 추억이라는 향주머니가 되었다**는 그이의 말에서, 그토록 수많은 실연의 반복 속에도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 세상 이치를 조금은 깨닫게 된다.

지친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응원

한편 카운터펀치에 맞아 링 위에 쓰러진 사람 같은 우리네 인생에 한비야가 주는 위로의 기술도 만날 수 있어 행복하다. 한비야는 "잘하고 있는 사람을 응원할 때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인생이란 링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응원할 때는 세심한 마음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누워있는 사람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하며 조용히 위로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해인 수녀도 <슬픈 사람들에겐>이라는 시에서 **"슬픈 사람들에겐 /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요 / … / 눈으로 전하고 / 가끔은 손잡아주고 / 들키지 않게 꾸준히 기도해 주어요"** 라고 노래하지 않았는가. 격정적인 인생의 현장에서 지난 십 수 년을 누빈 한비야는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보통 때 나는 시끌벅적한 응원단장이지만 가끔씩은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조용한 응원을 해주고 싶다."

가슴뛰는 삶을 향하여

"저는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라고 묻는 사람이 많은 시대다. 십대는 물론이거니와 이십 대들도 제 갈 길을 몰라 묻는다. 대학에 입학해도 엄마가 학점 관리에서부터 회사 면접까지 동행해 주는 시대. 그러나 한비야는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대견하다"하면서 "그 나이에는 자신의 꿈이 뭔지, 어떻게 찾는 지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추임새를 넣는다. 그들은 이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날갯짓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비야는 이제 막 날갯짓을 시작한 이들에게 **"자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먼저 파악하라"**고 조언한다. 낙타로 태어났으면 사막에, 호랑이로 태어났으면 숲 속에 있어야 자기 능력을 최대치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숲에 사는 낙타, 사막에 사는 호랑이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 않은가.

이제 남은 일은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를 묻고, 묻고 또 묻는 것이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파워 인터뷰를 해야 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 잡은 걸 절대 놓지 않는 물귀신이 되어야 한다. "희미한 것이 또렷하게 보일 때까지. 적어도 방향은 맞게 잡았구나 확인이 들 때까지" 말이다. 이제부터 혼자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하는 것이다. 이제 어른이 되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건 사랑이었다

한비야가 전하는 삶의 미덕 또 하나, 그것은 바로 단순함이다. 몇 년 째 같은 옷을 입어도 질리지 않으니 두어 벌의 옷이 안성맞춤이다. 빠르고 정확한, 거기다 책을 읽을 수 있는 보너스 시간까지 제공하는 대중교통을 좋아하니 차도 필요 없다. 소비가 미덕인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지만 "창피할 것도 없다." 대책 없을 정도로 돈에 휘둘리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애면글면하며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단순한 삶은 결국 자유의 삶이다. 한비야는 단순하고 자유로운 삶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 덕목임을 책 구석구석에서 아낌없이 보여준다.

여전사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생활인 한비야로 돌아온 그 이는 『그건 사랑이었네』를 통해 자신만의 내밀한 사생활을 가감없이 드러낸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다. 그 한마디에 우리가 잊고 살았던, 세상을 사는 지혜가 숨어 있음을 본다.

"그렇게 다 털어놓고 나니 알 수 있었다. 세상과 나를 움직이는 게 무엇인지 보였다. 세상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자신을 향한 내 마음 가장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도 또렷하게 보였다.

그건, 사랑이었다."

장동석 (북칼럼니스트 / 9744944@hanmail.net)